

노인미디어교육의 목표와 교육방법에 대한 인식 연구

노인미디어교육 교사 및 학습자와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강진숙*

이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노인미디어교육의 목표와 교육방법을 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의 배경으로서 노인미디어교육의 국내외 현황과 쟁점을 검토한 후 FGI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노인미디어교육에 대한 교사 및 학습자들의 인식들을 분석하였다. 심층인터뷰 기조는 노인미디어교육의 목표, 노인미디어교육의 장애요인과 문제점, 선호하는 교육방법 그리고 제안점 등으로 구성하여 교사 및 학습자의 경험에 근거한 심층적 견해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사회적 소외계층의 이론적 체계화와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노인미디어교육, 고령화 사회, 실버미디어, 모니터교육, 노인복지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힘을 갖는 것, 그리고 세계와의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은 개인적인 시간의 잣대를 천문학적 시간의 기준틀에 따르지 않고 분리시키는 데서 시작된다.” 이것은 비릴리오가 ‘천문학적 시간’, 즉 자연의 법칙에 따른 고정된 시간의 흐름을 이탈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던진 말이다(Virilio, 1989, p.57). 그에 따르면, 이미 고정된 크로노스의 ‘현재’ 시간이 아닌 경로 이탈한 다른 시간과 여행을 꿈꾸고 체험하는 것은 힘을 소유하는 것이자 세계와의 유희를 주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른’ 시간에 대한 사유는 청년들에게만 고유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생물학적 연령의 고하를 떠나 이 세계에 개입하고 유희할 수 있는 능력은 노인들에게 더 절실한 것인지 모른다. 많은 경륜을 축적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순간, 이미 그의 역할은 제도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노인미디어교육에 대한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선진국에서조차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체감지수는 이전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단적인 예이다. 노인복지제도와 연금제도가 확충되었다 해도 고령화의 급격한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9년도 초에 영국의 노년권익증진단체(Age Concern)와 노인복지회(Help the Aged)는 공동 보고서를 통해 영국 전역의 65세 이상 노년층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4%(200명 이상)는 2008년보다 삶의 질이 악화되었다는 의견을, 응답자의 60%는 노년층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응답했다. 특히 현재 노년층이 호소하고 있는 외로움, 우울증, 경제적 빈곤은 노년층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진단이다(EKNews, 2009.4.7). 독일의 경우는 2009년 4월 현재 물가상승률이 10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지만, 경제위기와 기업들의 비용절감을 근거로 들며 부업 종사 연금생활자들을 해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EKNews, 2009.4.6).

*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부교수(jskang1@cau.ac.kr)

이러한 선진국 노인층의 현 상황은 연금 및 복지제도의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보다 덜 우려스럽지만, 중요한 것은 노인층 역시 사회변화와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가 되었다는 점이다. 즉 회사와 조직, 혹은 가정과 자식이 아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탈권위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세대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성찰의 방법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 회사와 조직 혹은 가정에 적응해 살면서 ‘개인 시간’보다는 ‘타자의 시간’에 익숙한 경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인생경험과 연륜을 잣대로 청년 세대의 생활 및 사고방식을 재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노인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노인층이 이탈한 세계에 재개입하고 자신의 시간을 타인과 공명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노인미디어교육이 필요한 근거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할 때, 이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노인미디어교육의 목표와 교육방법을 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의 배경으로서 노인미디어교육의 국내외 현황과 쟁점을 검토한 후 FGI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노인미디어교육에 대한 교사 및 학습자들의 인식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심층인터뷰 기조는 노인미디어교육의 목표, 노인미디어교육의 장애요인과 문제점, 선호하는 교육방법 그리고 제안점 등으로 구성하여 교사 및 학습자의 경험에 근거한 심층적 견해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사회적 소외계층의 이론적 체계화와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배경

1) 노인의 특수성과 미디어교육

노인미디어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의 정의와 특수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정의와 특수성은 다양한 학문적 접근과 시각 속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중에서도 초창기 국제노년학회와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규정, 노인의 특수성 그리고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951년도에 제시된 국제노년학회의 정의는 다층적인 접근 속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층을 기준으로 노인 개념을 정의할 때, 1981년 제정되고 2009년 일부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인 자를 지칭한다(노인복지법, 법률 제 9386호 일부개정, 2009.1.30). 특히 기본 이념(동법, 제1장 2조)의 항목에는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 대상으로서 규정되고 있다.

선진국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사회의 경보음이 울리면서 이러한 노인의 문제는 사회적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 UN의 정의에 따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 이상~15% 미만인 사회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지난 2000년 7.2%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08년 현재 10.3%를 넘어서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노령화 지수는 2008년 현재 59.3으로 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노인인구가 59명을 나타냈고, 2016년에 이르면 100.7로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초과할 것을 우려되고 있다(2008 고령자 통계, 2008.10). 이러한 현상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2005년의 노인층 인구비율은 도시지역이 7.2%인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18.6%를 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 분포에 있어서도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2005년도 고령취업자의 절반 이상(52.7%)이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노인은 보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참여의 능력을 지닌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이중적 특수성을 지닌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 급변하는 정보·미디어환경의 속도처럼 노인의 사회적 소외현상 역시 증가(신지민, 2006)하고 있고, 다른 한편 노인들이 ‘직접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 배움터가 필요’(손지영, 2006)하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미디어의 노인 이미지 왜곡은 현실의 소외구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카마이클(Carmicheal, 1976)은 TV 속 노인의 이미지는 느리고, 덜 지적이며, 병든 상태로, 성적 매력이 없고, 추하며, 망령기 있는 상태로 묘사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다른 연령층,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에게 노인의 부정적 태도를 유발하며, 나아가 세대 간 갈등의 한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거브너(Gerbner, 1980)는 TV시청이 많은 청년층일 수록 노인을 부정적이고 비호의적인 대상으로서 간주하는데, 이는 특히 18~27세 청년층에게 강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후자의 경우, 노인의 특수성은 보다 적극적인 함의를 내포한다. 즉 노인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권리를 지닌 주체로서 그 권한은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1년 UN은 ‘노인을 위한 원칙’ 5개 항목을 발표(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참여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은 사회적 참여와 문화적 향유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이전까지 노인은 보호대상이자 무능력한 대상으로서 제한적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미디어의 노인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왜곡되어 묘사되는 경향이 팽배한 미디어 환경에서 노인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미디어 비평 행위와 모니터 활동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노인이 중심이 되는 미디어교육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노인의 참여와 자아실현은 자신의 주체적 권리 획득과 연관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인 수용자를 위한 전문 채널과 콘텐츠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미디어교육은 노인층의 미디어능력, 즉 미디어 지식과 비평, 미디어 이용 및 제작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적 참여와 의사표현의 기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한다.

요컨대, 노인미디어교육의 목적은 노인층의 권리확대와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획득하기 위한 미디어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 노인미디어교육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볼 때, 노인들의 소외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2016년 유소년인구를 초과할 때를 대비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회 활동능력의 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중요한 문제는 노인미디어교육이 얼마나 많은 참여와 관심 아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얼마나 학술의 장과 교육현장 간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데 있다.

2) 노인미디어교육의 현황

(1) 외국의 사례

노인미디어교육은 다양한 시민미디어센터와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남녀 노인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의 경우 45~50세 이상의 노인층을 위한 미디어교육과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편, 우리의 경우는 주로 60세 이상의 노인층이 참여하는 교육과정들이 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미국의 경우 1950년대부터 노인복지의 측면에서 다양한 노인 미디어교육 정책을 시행해 왔다. 현재까지도 각 주정부의 정책에 따라 55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술교육과 컴퓨터 관리 및 직업훈련 강좌를 실시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노인의 교육경험은 궁극적으로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활동과 연계되어, 노인의 사회생활과 여가활동을 돕는 직접적 수단(Herzog, Franks, Markus & Holmberg, 1998)이면서 동시에 사회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시스템화되어 운영된다.

또한 영국의 경우, 1920년대 말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노인 미디어교육은 평생교육과 여가활동의 일환으로서 실시되고 있다(임영경, 2007). 영국의 지방교육위원회와 도시 여성노동자 교육협회는 외국어, 요리, 문학, 음악감상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교육 및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위원회와 사회봉사위원회는 미디어교육단체 뿐 아니라 대학의 관련 학과들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역사, 자연탐구, 회화, 미디어 이용교육 등 노인여가활동에 초점을 둔 노인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노인을 위한 전문채널은 없지만 45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채널인 ‘Télé Mélody’가 있다(김영주·정재민, 2006, 49쪽). 이 채널은 프랑스 연예 및 음악 채널로서 60~70년대의 음악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위성인 Canalastellite나 TPS에 의해서, 케이블인 France Télécom Câble, France Cité vision, MC Câble에 의해서 그리고 ADSL TV인 FREEBOX에 의해 시청이 가능하며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방송된다.

한편, 독일 노인미디어교육의 경우 주로 50대 이상의 노인층이 참여하는 TV, 인터넷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을 위한 시민미디어센터인 시립 ‘뮌스터 벤노하우스(Bennohaus in Münster)’의 컴퓨터와 인터넷 과정을 들 수 있다. 이 교육과정의 목적은 50대 이상의 관심층을 대상으로 학기제 형식의 특별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고, 참여자들은 다른 교육프로그램도 수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 미디어센터는 노인층이 뉴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미디어 능력 개발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그 핵심은 노인 이용자들의 창의적인 제작가능성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세대 간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미디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뉴미디어 시민TV 공동 제작, 노인층과 청년층이 함께 하는 비디오 프로젝트, 디지털 사진 작업, 삶으로부터 온 사진의 역사, 가상 필기작업실, 능동적인 비디오필름제작, 컴퓨터와 인터넷교육 등을 통해 노인층의 관심과 참여를 점차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컴퓨터와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fabermedia사(www.silbermedia.de)가 주관하는 ‘실버 미디어(SilberMedia)’ 교육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교육과정의 목적은 50대 이상의 노인층이 뉴미디어를 이해하고 PC에 접근하여 이용방법을 습득함으로써 미디어능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집과 사무실 등에서 수강이 가능하며 일반과정과 속성반으로 구분된다. 즉 일정한 교육 과정 후의 심층적인 지식을 가진 수강생뿐 아니라 컴퓨터를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초보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 “마우스 앞에서는 겁먹지 마라”는 모토를 내거는 이 교육과정의 제 1단계는 컴퓨터에서 간단한 편지 작성, 사진편집 그리고 월드 와이드 웹에서 온라인 बैं킹을 이용하거나 문헌조사를 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버미디어 클럽에서는 초보자, ‘기술협오자’ 그리고 노인들이 새로운 접촉을 시도하고 공감대를 발견하도록 한다. 또한 노인층이 새로운 테크닉의 트렌드, 변화 그리고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요컨대, 외국 노인 미디어교육 현황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은 노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단순히 카메라와 비디오 작동법의 훈련이 아니라 노인복지, 여가활동, 그리고 사회참여의 기회 제공 등을 위한 문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또한 이미 TV에 대한 접근성과 친밀도가 높은 노인층이 인터넷 등의 뉴미디어 환경에서도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국내 사례

국내 노인미디어교육은 주로 노인복지기관, 시민단체, 미디어센터 등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국내 노인미디어교육의 일반적 특징을 보면, 참여자들은 주로 60세 혹은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고, 학습미디어는 TV, 영화, 디지털 카메라 등이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우선, 국내 노인복지기관 중에서 두드러진 곳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보호모니터단’ 미디어교육을 들 수 있다. 2007년 3월에 모집공고를 낸 후 4월에 오리엔테이션과 위촉식을 거쳐 출범한 이 모니터단은 현재까지 모니터링 교육과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 모니터단의 출범 목적은 “대중매체 속에 비취지는 노인의 모습을 모니터함으로써 향후 긍정적인 노인 이미지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기조로 모니터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중매체 속 노인의 노출빈도 분석을 통한 대중매체의 관심도 점검, 대중매체 속 노인의 역할, 상황설정, 성격묘사 분석, 그리고 노인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참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과는 노인층 모니터단 활동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통해 모니터 결과들을 다양한 보도자료로서 출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2007년도에 8개월간 실시된 모니터단 활동은 65세 이상 노인 10명(남성 8명, 여성 2명)을 단원으로 하여 두 개의 팀, 즉 방송모니터팀과 보도모니터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활동분야는 주요 신문, 뉴스의 노인관련 기사 내용 및 보도 경향 분석, 드라마 등 TV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노인의 역할, 상황 설정, 성격 묘사 등의 분석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음으로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경남 창원시청의 재정적 후원을 통해 “기자로 나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노인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07년 5월에서 8월까지 총 4개월(16차시)간 진행된 이 교육은 창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40명의 노인들이 참여한 채 진행되었다. 이 교육의 목적은 “디지털카메라와 디지털캠코더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교육하고, 단순 여가선용이 아니라 취미생활을 극대화시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사진의 이해, 촬영 테크닉, 편집과 품평회 등의 순서로 구성되었고, 교육의 결과물은 자료집과 영상물 CD로 배포되었다. 이 교육은 노인층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특히 카메라를

직접 다루면서 미디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행사에 카메라 도우미로 나서는 등 적극적인 사회 활동도 도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2005년 8월에 개관한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영상의 힘)’는 영화진흥위원회의장비지원과 전주시의 공간 및 운영보조금 지원에 의해 출범하였고, 현재 노인미디어교육은 물론 장애인과 이주여성 미디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http://www.0simi.org>). 특히 영시미는 전북 지원사업인 ‘시·군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사업’의 일환으로서 노인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0~70대 노인층을 주 참여층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 교육을 활용하여 단편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교육과정에서 노인 참여자들이 촬영, 제작한 영화 <안녕하세요>는 2007년 11월 9일~10일 이틀간 개최된 전북 퍼블릭액세스 영상축제에서 상영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센터가 주최한 노인미디어교육 사례로서 마산 MBC시청자미디어센터의 “2007 시청자교육: 할배할배 영화만들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재정적 후원은 방송문화진흥회와 마산MBC시청자미디어센터 양측에서 담당하였다. 이 교육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인 노인들이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의견을 영화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 스스로 변화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특히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변화시키고 참여자들이 사회에 대한 의사표현에 자신감 있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교육의 취지인 것이다. 이 교육은 2007년 10월 22일~11월 30일까지 주2회 일정으로 12차시(총 24시간) 수업이 진행되었고, 기톨릭여성회관 노인대학 20명이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내용을 실시하였다. 교육과정은 영화와 시나리오의 이해, 숏의 의미와 종류, 역할별 심화교육(감독, 작가, 촬영), 영화 시놉시스 구성, 촬영 계획 및 실습 등의 흐름을 기조로 구성되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노인미디어교육의 배경 및 목적은 공통적인 특성을 지닌다. 우선, 사회와 미디어를 통해 왜곡된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둘째 다양한 미디어의 이해와 제작방법을 학습함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과 친밀감을 높여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노인미디어교육의 목적은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함으로써 사회적 소외와 상대적 박탈감, 세대 간 소통 장벽 등의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디어능력의 촉진에 있다. 미디어교육에 있어서 미디어능력은 미디어와 사회변화에 대한 비판적 지식과 인식에 기초하여 미디어의 능동적, 창의적 이용 및 제작 능력들을 포괄하는 핵심 동력이기 때문이다. 물론 노인미디어교육의 지속성 여부 검증과 제작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지역적 공유 방안의 모색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3) 노인 미디어이용 및 교육 관련 연구 현황

노인미디어교육 관련 연구는 노인층의 미디어 이용실태에서부터 미디어교육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연관되어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언론학, 사회복지학, 그리고 교육학 등 학문분야별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언론학 분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홍명신(2003)은 노인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연구에서 60세 이상의 노인 계층 33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인들의 74% 이상이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며 이메일 서비스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중급 이상의 인터넷 이용능력을 가진 응답자가 과반수였다. 그리고 인터넷을 채택한 노인들은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 화이트 컬러로서 다양한 뉴미디어를 보유·이용하고 있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특히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은 이미 1991년 이전부터 인터넷을 사용해 왔는데, 최소 5년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뉴미디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인터넷을 가장 자주 이용하며 인터넷 이용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는 노인 계층의 인터넷 이용현황과 존재조건에 대한 분석은 다층적으로 하고 있으나 온라인 설문조사라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온라인 조사에 응할 정도면 이미 인터넷 이용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노인 계층이고 학력과 소득수준이 중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재민·김영주(2007)는 노인층의 텔레비전 이용행태와 충족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층의 TV이용동기, 시청량, 만족도 등을 실증 분석하고 있다. 전국 만 60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조사결과 우선, 시청량의 경우 중소도시 거주 노인층의 시청량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타났고, TV이용에 따른 만족도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TV시청 동기는 휴식/오락, 소일하기/습관, 회피, 학습 등 다른 연령층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TV에 대한 태도에서 노인층은 TV내용을 현실로서 인식하고,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존재로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편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층들의 미디어 이용행태와 충족에 대한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노인층의 TV이용에서 나타나는 장르별 선호도와 이용동기, 만족도 등과 연관된 분석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와 함께 수용자복지론에 근거하여 김지현(2006)은 노인의 텔레비전 경험연구를 행하였다. 이 연구는 이전의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수용자복지론의 관점, 특히 접근성, 다양성, 그리고 수용자의 총체적 만족을 기준으로 TV에서 노인의 수용자복지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 노인층의 TV접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노인 프로그램의 양적 다양성이 구현되지 않고 있으며, 총체적 만족의 측면에서는 제한적 만족에 그친 ‘체념적 만족’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 가지 수용자복지론의 접근 개념들은 노인복지의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유의미한 근거들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노인의 여가활동과 미디어복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선, 임영경(2007)은 노인의 여가활동에 나타난 TV이용실태를 실증조사 분석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TV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경기지역 60세 이상 노인층 200명을 대상으로 1:1 설문지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들의 주요 여가활동은 TV시청이었고, 이를 통해 뉴스나 정보를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 노인들의 TV시청시간은 2~3시간이 가장 많았고, KBS 1TV 채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노인 여가활동의 활성화방안으로서 절적한 방송시간 편성, 정보의 다양성 획득, 노인수용자에 대한 인식전환,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성 확보, 그리고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정부가 노인복지 정책의 차원에서 노인전문채널(실버TV)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피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소외계층으로서의 노인을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양영순(2004)은 노인들의 자아통합감에 인터넷 활용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362명의 인터넷을 활용하는 노인들과 100명의 인터넷 비활용노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인터넷 활용노인

의 경우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신건강, 주관적 생활수준, 현재 직업, 결혼 상태인 반면, 인터넷 비활용 노인들의 경우 성별, 예전직업, 자산, 학력요인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두 집단 간에 공통요인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세 번째로, 노인학 및 교육학 분야에서 이가옥 외(2006)는 노인 휴대전화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일대일 개별 교육방식’으로서 노인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별교육을 실시한 교육도우미,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참여 연구자, 그리고 노인 참여자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노인 참여자 중심의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행한 연구방법은 노인과 교육도우미를 대상으로 양적 설문조사방법과 FGI(Focus Group Interview)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노인 휴대전화 프로그램 개별 교육방식에 대한 질적 평가는 노인과 교육도우미 모두 개별 교육방식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적 평가 결과 노인과 교육도우미 모두에게서 개별 교육방식이 가장 높은 점수의 평가를 받았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노인 미디어 이용 및 교육 관련 주제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디어 중에서도 TV가 노인층의 일상생활과 여가시간의 중심 미디어로서 위치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 등에 대한 노인층의 접근성은 아직까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층에 특화된 TV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과 노인전문채널의 확대, 그리고 상시적인 미디어교육의 기회 제공 등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노인 미디어교육 참여자들이 경험적으로 노인 미디어교육의 목표, 장애요인, 교육방법,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노인미디어교육의 목표는 어디에 두는 게 타당한가?

연구문제 2: 노인미디어교육의 장애요인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어떠한 노인미디어교육 방법이 선호되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4: 노인미디어교육 환경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위의 연구문제들에 근거하여 FGI 인터뷰 설문 항목을 구성하였다. FGI 설문 내용의 범주는 크게 네 가지 측면, 즉 노인미디어교육의 목표, 노인미디어교육에 있어서의 장애요인과 문제점, 선호하는 노인미디어교육 방법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참여자들의 인식들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연령	성별	전공/미디어교육기관	종사/교육 기간
교사 A	41	여	문헌정보학	72개월
교사 B	28	여	사회복지	12개월
교사 C	48	여	말레이-인도네시아어	36개월
교사 D	33	남	영상문화학	72개월
교사 E	29	남	사회복지	19개월
학습자 F	74	남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문화원	3회
학습자 G	65	남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3회
학습자 H	73	남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6회
학습자 I	64	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SBS, 오마이뉴스 등	7회
학습자 J	67	남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SBS, 오마이뉴스 등	10회

2) 연구방법과 연구참여자 특성⁴⁾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로써 노인미디어교육 교사와 학습자들을 선정하였고, 연구방법으로서 FGI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참여자들을 선정한 이유는 우선, 노인미디어교육 교사들의 경우 교육현장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인식과 비판적 견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인층 학습자들을 선정한 이유는 교사들의 외부적 인식을 보완할 수 있는 학습자로서의 내부적 경험과 인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FGI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한 공간에서 논의되는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인식과 경험들을 통해 개별 인터뷰보다 심층적인 인식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위에서 구성한 연구문제들에 근거하여 반개방형 FGI 방법을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반개방형 인터뷰 과정을 통해 문제의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표현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 절차는 2008년 7월에, 12개월 이상 노인미디어교육 강의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5명과 3회 이상 노인미디어교육 수강경험이 있는 학습자 5명을 선정하여 총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 참여자들의 선정기준은 노인복지관의 복지사 추천에 기초하여 12개월 이상 교육종사자와 총 3회 이상 노인 모니터 교육 유경험자들을 눈덩이 표집하여 선정하였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FGI에 참여하지 못한 학습자 일부는 e-메일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여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였다. 그 결과 위의 <표 1>과 같은 연구참여자와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게 되었다.

4)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뷰 자료는 언론재단 연구보고서(김영순·강진숙·이영주, 2008,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교육 연구』, 한국언론재단)의 기초 자료들과 추가 인터뷰 자료들에 근거한 것임.

4. 노인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

1) 노인미디어교육의 목표 인식

연구참여자들에게 노인미디어교육의 목표는 어디에 두는 게 타당한지를 질의한 결과 다양한 의견들이 추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노인미디어교육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이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미디어교육의 목표에 대한 주된 의견은 ‘노인들 스스로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중 <교사 A>는 5회에 걸친 노인미디어교육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노인층이 미디어에 접근함에 있어 보다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도록 하고, 이를 위해 미디어 지식과 이용방법을 배워서 ‘소일거리가 되는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TV의 경우 노인층의 미디어 접근성은 다른 연령층 못지않게 강하지만,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능력 개발까지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 결과를 보고 자료로 출간하는 지역 노인 모니터단의 활동들은 이러한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노년층의 사회적 노동의 기회가 축소되거나 배제되면서 노인층 스스로도 사회적 여론 참여와 의사표현의 기회를 표출하지 않는 수동적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신체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의 경우, 미디어교육을 통해 잠재된 능력과 표현수단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그 다음으로 두드러진 의견은 ‘합리적 의사소통과 자율적 미디어 이용을 위한 현실 인식능력의 개발’을 목표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미디어교육 과정에서 당혹스러운 노인층의 일반적 태도는 ”윤리적,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교사 C>)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능력은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학습 과정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교사 C>, <교사 D>)이다. 즉 미디어교육을 통해 편견과 선입견, 혹은 자신의 경험적 세계에 머물러 있는 노인층의 생각들을 보다 열린 세계로 이끌어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노인미디어교육의 목표는 노인층의 현실인식과 자율적 미디어 인식 및 토론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돕으로써 “노인층 자신의 의견을 내는 목소리”(<교사 C>, <교사 D>)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점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자기 표현의 담지자로서, 적극적 미디어 수용자로서의 노인층의 위상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 비친 노인층의 문제와 대안에 대한 비평능력의 촉진’을 미디어교육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의견은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의견에서 나아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일정한 미학적 형식을 지닌 비평능력의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의 일자리 사업은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 모니터 교육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발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교사 B>), 오히려 모니터 교육을 통한 비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언론지상에 노인이 어떻게 잘못 표현되고 있고,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를 노인 동료집단 내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UN에서 발표한 노인층의 참여 및 자아실현의 원칙은 TV 속의 노인이미지에 대한 수동적 소비가 아니라 비판적 개입을 통해 문화적 향유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교사 E>는 ‘노인층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즉 노인층을 대상으로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인터넷 문서작성 등 실생활에서 유용한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 미디어교육에 참여했던 노인 학습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과연 노인미디어교육의 목표가 미디어지식과 이용능력, 현실인식 및 비평능력의 촉진 그리고 정보화능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이에 대해 모니터 교육에 참여했던 노인 학습자들은 자신의 참여 동기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사실 미디어교육은 노인으로서의 사회적 위치 상 정규과정을 통해 배우기가 어려워요. 주로 필요성을 느낀 것은 모니터 활동을 하면서요. 미디어 활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컴퓨터는 일상생활에 많이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현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필요합니다.” - <학습자 F>

“모니터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전문가에게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교육을 받게 되어 많은 것을 배우고 미디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 <학습자 G>

요컨대, 노인층 수요자의 미디어교육 참여계기는 퇴직 전후로 이어지는 미디어교육 활동 경험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노인층의 미디어교육 참여는 공공의 정규 과정이나 기회제공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습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노인미디어교육은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사회적 참여를 고려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TV와 라디오에 대한 수동적 수용자가 주를 이룬 노인세대의 미디어환경에서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미디어의 이용 및 제작을 행할 수 있는 전환적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노인미디어교육의 장애요인과 문제점 인식

이어서 노인미디어교육의 장애요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교사 A>의 경우 노인미디어교육의 장애요인이자 문제점은 교육을 위한 시간분량은 짧고, 요구하는 교육 분량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단발마적이고 단기적인 노인미디어교육 환경으로 인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교육기관, 특히 노인미디어교육을 원하는 복지관에서 미디어교육의 목표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노인미디어교육에 대한 경험과 연구의 필요성이 부족한 현실을 비판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노인미디어교육이 기본적으로 잘 되려면, 사회복지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잘 짜시듯이 이 미디어교육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경험과 연구가 많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정보들이 없다 보니깐 처음에 한 거 베껴서 계속 똑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 <교사 A>

이와 관련된 장애요인은 노인층 모니터단의 부재와 미디어교육 관계자들 간의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부재 현상이다. 즉 노인층의 일부는 충분한 미디어 제작교육을 받고 모니터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모니터 결과를 보고서 양식으로 재구성하거나 정보전송방법 등의 미디어 활용 능력까지는 체계적으로 교육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교사 B>)이다. 그 이유는 복지기관의 노인전담 사회복지사와 미디어교육 기관의 전문가들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소통의 네트워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모니터 교육과정에서 노인층의 생활환경과 교육기간을 고려한 수준별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난해한 수준의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교사 C>)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복지관 측에서 노인미디어교육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교사 D>)에서 발견된다. 특히 사회복지사가 과중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10여 개 이상의 사업을 총괄해야 하는 입장에서 미디어교육 사업은 그 중의 우선순위가 아닌 부차적 과제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난해한 수준보다는 노인층에 적합하고 특수한 문화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사 E>는 미디어교육의 주요한 문제로서 노인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컴퓨터교육의 상당수는 취업을 위한 것이나 특정 기술을 익히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노인층 학습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문기술보다는 인터넷 정보검색이나 e-mail 주고받기, 간단한 문서 작성 등의 작업을 통해 기초 활용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노인층에 적합한 큰 글씨체의 노인층 눈높이에 맞춘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상에서 분석한 노인 미디어교육의 장애요인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우선 교육기관의 목표의식 부재와 단기성 교육, 미디어교육 관계자들 간의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부재, 난해한 모니터 교육이 아닌 노인에게 특수한 문화프로그램의 필요성, 그리고 노인층을 위한 정보화교육이 미비하다는 점 등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견해들은 학습자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학습자들은 미디어 교육에 참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용어들이 낯설고 생소해요. 어렵습니다.”- <학습자 F, I>

“대개는 이론적으로도 좋지만 실습적인 활용수업이 부족해요 또한 노인들은 문명의 이기인 디지털 미디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서 쉽게 이용하는 게 서투르므로 방송국, 신문사, IT제조회사, 판매회사,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노인들을 위한 강좌를 개설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저도 그렇고 배우려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 <학습자 G>

“처음 시작할 때는 교육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교육은 어려웠어요.” - <학습자 H>

위의 경우처럼 학습자들은 미디어교육의 난점으로서 미디어교육 관련 용어들의 생소함과 난해함을 지적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용어들은 익숙하고 이해가 되지만, 교육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심층적인 이해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학습자들은 인터넷 등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접근 및 이용의 측면에서 가장 힘든 경험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두 입장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연령별 디지털격차를 연상케 한다. 즉 노인층과 청년층 간의 연령별 격차로 인해 미디어 접근과 활용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의 교육 선진국에서도 이미 사회적 이슈로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것은 곧 노인층의 사회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재생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노인층 미디어교육 학습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이유는 ‘문명의 이기인 디지털 미디어에 접근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층 학습자들은 뉴미디어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능동적 이용을 원하고 있다.

3) 노인미디어교육의 방법 인식

여기서는 가장 선호하거나 효과적인 노인미디어교육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되는데, 하나가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에 초점을 둔 입장이라면, 다른 하나는 실습과 미디어 작동법 등의 미디어 제작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방법을 중시하는 것은 제작교육의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실습과 토론교육을 통한 노인층의 시각 전환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즉 실제로 신문이나 뉴미디어 콘텐츠를 눈앞에서 보고 읽으며 느낄 수 있는 실습과정을 통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훈련과 교육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과 같은 사안들은 보조자들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계속 토론하고 정정해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지나치게 보수적인 습성을 보이는 분들에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례로 어떤 분들은 교육 과정에서 H신문 팔러 온 줄 알아요. 특정 보수언론들을 비판하기 때문에 (……) 강의 때와는 다르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친해지고 안면을 트게 되면서 교육이 진행되는 거지요.” - <교사 A>

위의 언급처럼 <교사 A>는 노인미디어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습 및 토론교육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은 미디어 작동법의 이해이다. 즉 노인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미디어는 TV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비디오의 녹화기법을 익히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견해이다. 즉 한편으로 노인층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느리고 고집이 강하지만, 아침시간 TV시청에 성실성을 보이고 프로그램 충성도가 강하기 때문에”(교사 A) TV모니터를 위한 녹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뉴미디어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VOD 시청 방법에 대한 교육 수준에서 실습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교사들은 노인층이 직접 미디어를 작동할 뿐 아니라 제작도 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일반 노년 대상으로는 미디어 작동법이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필요한 사이트 까지 찾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더 나아가면 따로 활동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활동경

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해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어야죠.” - <교사 C>

“소통의 장애가 있다는 점에서 모니터 활동에 동의해요. 어르신들은 자신의 신념을 잘 바꾸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이 직접 미디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깨닫지요. 자신은 다큐를 제작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찍는데, 자신을 찍으러 온 방송국 PD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연출시켜서 하더라. 아~방송은 뭔가 조작된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니까요.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는 매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아요. 매체에 대한 이해와 비평 능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사 D>

요컨대, 앞의 <교사 A>의 경우 기초적인 수준의 미디어 작동법에 대한 실습과 인식 조율을 위한 토론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면, <교사 C>와 <교사 D>는 직접 참여를 통한 미디어 제작 메커니즘과 단계별로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제작교육방법을 중시하고 있다. 이처럼 참여자들의 의견은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해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층의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즉 다른 일반인들과 달리 노인층은 이미 습관화된 사고체계와 자기 경험 및 연륜에 기반한 자기 확신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사고 및 행위체계를 쉽게 변화시키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이도에 따른 단계별 교육방법이 필요하지만, 노인층 학습자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접적인 미디어 체험과 접근성, 그리고 친밀도를 높이는 교육방법이 중요하다.

그 밖에도 <교사 E>의 경우, 정보화 교육 도우미를 활용하여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노인층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언급하였다. 실제로 교육도우미에 대한 반응이 좋아 가능한 수업별로 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도록 활동을 확대하고 있고, 추후 노인층으로 구성된 IT봉사단을 조직하여 정보화교육 도우미로 활용할 계획도 밝혔다. 노인층에 가장 좋은 교육방법은 일대일로 교육하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교육방법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교육도우미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 학습자들은 어떠한 교육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가?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강의를 구체적으로, 그런 커리큘럼이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 모니터링을 작성하는 것을 배운다면, 방송내용에 대한 착안점이라든지, 포인트, 핵심을 도출하는 방법, 모니터링 작성하는 실제적인 방법, 결론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등 시스템 과정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실제 교육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 보조 교육자료도 이런 과정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학습자 F>

“모니터링 교육방법은, 짧은 시간이므로 강의식으로만 들었지 실습을 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여 실습을 병행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나 컴퓨터 교육과 같은 것은 실제로 실습위주로 하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흥미 있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 <학습자 G>

이처럼 노인층 수요자들은 전반적으로 강의식 교육방법과 짧은 교육시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자 F>의 경우 추상적 내용 보다는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예컨대, 모니터링 작성 이론, 방송내용의 핵심 도출 방법, 모니터링 작성을 위한

실제 방법, 그리고 결론 작성 방법 등이 그것이다. 또한 <학습자 G>의 경우, 선호하는 교육방법은 짧은 시간 동안에 강의식 교육을 진행하기 보다는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여 실습교육을 병행하는 방법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모니터교육에 대한 교육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학습자 H>의 모니터링 작성법 참여 경험은 ‘동료들과의 어려운 토론’으로 기억된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감수해 줄 전문가의 코멘트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이러한 장치가 보완이 된다면, “발표식 교육방법이 유익”(학습자 I, J)하고, 향후 “취재, 사진촬영, 인터뷰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매스컴 과목”(학습자 J)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 의견은 심화교육에 대한 노인층 학습자의 요구를 드러낸다. 특히 “기사작성법, 인터뷰 요령, 토론 및 발표 등에 대한 전문적 교육”(학습자 I) 등에 대한 요구는 단적인 예이다.

이렇게 볼 때, 교사와 학습자 모두 강의와 실습 및 토론을 병행하는 다각도의 교육방법을 원하고 있지만, 선호하는 교육방법에는 미묘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즉 교사들의 경우, 토론수업을 위해 먼저 미디어작동법의 이해와 활용 등의 실습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중심을 이룬다면, 학습자들의 경우는 토론과 발표형식을 병행한 단계별 교육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순한 실습 교육이 아니라 모니터교육 중심의 단계별 운영으로서 초보수준에서 전문가 수준까지 연계되는 교육방법이 필요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감수와 코멘트를 통해 심화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전문적인 노인 미디어교육 교사의 인증체계와 맞춤형 교과과정의 개발이 부재한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4) 노인미디어교육을 위한 제안점

마지막으로 노인미디어교육의 향후 방향 혹은 제안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그 초점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된다. 우선, 모니터링을 통한 보고서 작성 교육 등 표현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노인층의 수준에 맞는 표현양식의 개발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 과정에서는 참가자 분들이 보고서를 통해 했던 것보다 심층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쓸 때는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서 글로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나오죠. 보다 더 세밀하게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환경(서식)을 만들어 주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과정들이 포함되어야 하구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고서를 만드는 양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교사 B>

두 번째는 노인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단체 토론회나 정부의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다. 미디어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노인층은 그 속도를 따라잡거나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층이 뉴스 기사를 다량으로 습득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층을 배려하는 시민단체 토론회나 사회 참여 프로그램은 부재한 게 현실이다. 노인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현실 문제를 고려하여 노인층의 소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이 뉴스를 많이 보시는데, 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안도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토론회가 어렵고 딱딱한데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많이 참여하세요. 그 분들을 보면 방송과 신문만으로는 사회 현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벽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목말라 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노인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단체 토론회나 정부의 공청회가 필요해요 대부분의 토론회나 공청회는 노인에 대한 배려 없이 어렵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전문가 집단을 통해 소수의 혜택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라도 쉬운 토론회가 많이 열린다면 열린 미디어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교사 A>

세 번째는 문화교육의 일환으로서 미디어교육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의견은 <교사 C>, <교사 D>의 의견으로서 문화교육의 차원에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노인층의 폐쇄적인 사고체계와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 제작교육 외에도 많은 노인층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 E>는 각 계층들의 개별적인 특수성, 성격, 배경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무리 좋은 강사와 좋은 교육과정이 있어도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각 계층별 학습자들의 특수성에 적합한 보조 도구 또는 기자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눈이 어두운 노인층을 위하여 보다 선명하고 큰 모니터를 마련하거나, 팔 또는 손 등의 동작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등을 교육현장에 마련하고 개선시켜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층이 접근하기 쉽도록 정보화교육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교육장소를 곳곳에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경우 주변에 어떤 곳에서 어느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접근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복지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의 계층별 특성화와 환경개선이 미미하다는 점은 계층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경우, 노인미디어교육을 위한 제안으로서 교육과정 자체보다는 주체의 의식, 교육환경 그리고 공동생활공간의 개선에 대한 의견들이 주로 제시되었다. 즉 노인 스스로 의식의 변화를 꾀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노인의 능력에 대해 평가절하 하는 사회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란 단순히 노인의 인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올 텐데, 미디어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홍보하고 준비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자신의 의식교육이 필요합니다. 미디어가 좋아져도 노인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미디어 영상물을 보급해 사회적 파장력을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교재와 같은 역할의 미디어 영상물, 노인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영상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 <학습자 F>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노래방과 기원으로 평가절하된 공동의 주거생활공간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의 문제가 미디어교육적 측면에서 결합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경로당 인구가 50%이고, 복지관 인구가 15%(약간의 자본 여력이 있는 인구), 기초생활만 하는 실버 인구가 8%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복지시설을 갖춘 복지관을 가더라도 여기가 노래방인가 기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행 프로그램이 단순하므로 노인들의 의식교육면에서는 좀 더 알차고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학습자 F>

여기서 교사들과 학습자 간의 인식 차이가 포착된다. 교사들의 인식은 ‘노인층의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미디어 접근의 용이성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노인 학습자들은 ‘노인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현상’에 대해 문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노인층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노인들에게 직접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편성에 참여하는 기회”(학습자 G)를 제공하지 않는 교육과정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인프라 개선을 강조하는 교사들의 의견과는 다른 측면, 즉 생활밀착형 고민이자 노인층의 경험적 문제제기로서 판단된다. 미디어교육적 측면에서 노인층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규정되지만, 정작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편성과정에서는 노인층 학습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배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5. 맺음말

이상의 연구결과는 노인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현실적 측면에서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노인의 특수성에 근거한 복지 차원에서 노인 미디어교육 전문교사의 양성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노인미디어교육기관은 주로 노인보호기관의 사회복지사 및 담당간사들을 중심으로 미디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곧 노인미디어교육을 전담하는 미디어교육 간사 및 전문교사가 거의 부재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미디어교육을 위한 전문교사의 양성과 안정적 지위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 미디어교육 교사 시험제도나 공인인증제도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노인세대의 눈높이에 적합한 교육방법이 요구된다. 즉 노인세대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보다 용이한 모니터링 방법과 실습이 난이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 작성 이론과 작성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장기간의 지속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앞의 FGI 분석결과에서도 제시했던 것으로서, 노인층 학습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은 단계별, 수준별로 운영되는 TV 모니터링 교육이다. 특히 핵심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제작배경에 대한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모니터링 작업을 노인층이 원활히 수행하고 감수할 수 있는 전문교사의 역할 역시 필요하다.

셋째, 노인미디어교육은 TV접근성 뿐 아니라 뉴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 촬영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초과정에서 노인 학습자가 비디오 녹화와 디지털 카메라 촬영 등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작동법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심화과정에서는 보다 전문화되고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 학습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세대가 다른 청년세대와 함께 미디어 비평 결과를 교류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비평의 장이 필요하다. 예컨대, 방송사와 인터넷 포털업체의 후원을 통해 ‘실버-청년’ 미디어비평대회를 개최하여 노인세대와 청년세대가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TV모니터 결과 발표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TV 속의 왜곡된 노인 이미지와 ‘철없고 건방지게’ 인식되는 청년 이미지의 문제들과 인식들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인식의 전환을 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행사는 정기적으로 연 2회 정도 미디어교육기관과 전문가들, 그리고 노인층 학습자들이 직접 주관하되, 노인층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를 꾀한다.

이상의 제언과 함께 더 나은 후속 연구를 위해 본 연구의 제한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총 3회 이상 모니터 교육 경험이 있는 노인 학습자와 12개월 이상의 노인미디어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를 선별하여 양측의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즉 한편으로 교사의 입장에서 노인미디어교육의 목표, 장애요인, 방법, 그리고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인식을, 다른 한편으로는 선호하는 교육방법과 프로그램,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노인 학습자의 직접적인 의견과 경험들을 수렴,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노인세대의 인구통계학적 기준에 따른 성별 및 연령과 연관된 세밀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현재 모니터교육 참여자의 성별이 남성 편향적이고, 연령층은 주로 65세 이상 70대 중반까지에 이르는 상황에서 성별, 연령별 기준에 따른 의견의 차이를 도출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적 차원에서의 노인미디어교육 관계자 및 학습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여 보다 세밀한 분석방법과 결과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 여성, 동성애자 등 다른 사회적 소외계층의 미디어교육과 연계함으로써 노인미디어교육이 노인층의 ‘소일거리’를 넘어서서 인권, 삶의 질, 평등의 가치들과 연계된 교육과정임을 검증하고자 한다. ‘표현은 곧 존재’라는 스피노자의 언명처럼, 노인 미디어교육의 존재이유는 노인 세대 역시 자신의 존재증명을 위한 표현 무기를 갖추고, 다른 세대와 연령, 그리고 신체적 차이를 가진 이들과의 공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결국 노인 미디어교육의 보편적 특질을 도출한 후 향후 보다 특수하고 분화된 노인세대로 접근하기 위한 기초 작업임을 전제하고자 한다.

Ⅰ 참고문헌

- 김영순·강진숙·이영주 (2008).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교육 연구: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재단.
- 김영주·정재민 (2006). 『노인과 미디어: 노인들의 미디어이용과 복지』. 한국언론재단.
- 김은규 (2003). 『미디어와 시민참여: 시민 미디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지현 (2006). 노인의 텔레비전 경험연구: 수용자복지이론을 중심으로. 동의대 대학원 언론광고학과 석사학위논문.
- 노인복지법, 『법률 제938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9.01.30』.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2006 여가백서』.

- 방송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 (2007). 『2007 부산·울산·경남 미디어교육 사례집』.
- _____ (2008). 『2007 방송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부산) 백서』.
- 손지영 (2006). 노인들을 위한 영상교육의 필요성과 기대. 『노인미디어교육의 의미와 방향설정을 위한 토론회』. 2006년 미디어엑트 미디어교육센터 미디어교육 포럼-첫 번째.
- 신지민 (2006). 서울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여성 노인미디어교육. 『노인미디어교육의 의미와 방향설정을 위한 토론회』. 2006년 미디어엑트 미디어교육센터 미디어교육 포럼-첫 번째.
- 양영순 (2004). 인터넷 활용 만족도가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윤영태·안영미·이진규 (2007).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례연구』. 방송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
- 이가옥·이미진·이지영 (2006). 노인 휴대전화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26-4호, 733~748.
- 임영경 (2007). 노인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TV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 정재민·김영주 (2007). 노인층의 텔레비전 이용행태와 충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1-3호, 172~200.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 통계청 (2008). 『2008 고령자 통계』.
- 홍명신 (2002). 노년층 인터넷 이용자의 기대가치 충족 연구. 경희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 Baacke, D. (1996). Medienkompetenz als Netzwerk. In: *Medien Praktisch. Zeitschrift für Medienpädagogik*. 2/96, H. 78, 20 Jg. 4~10.
- Carmicheal, C. W. (1976). Communication and Gerontology; Interfacing Disciplines. *Journal of the Western Communication Association*, 40, 121~129.
- Gerbner, George et al. (1980). Aging with Television: Image on Television Drama and Conception of Social Reality. *Journal of Communication* 30, 37~47.
- Herzog, A. R., Franks, M. M., Markus, H. R. & Holmberg, D. (1998). Activities and Well-Being in Older Age: Effects of Self-Concept and Educational Attainment.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sychology and Aging*, 13 ~2, 179~185.
- Kübler, H. D. (2005). Alter und Medien. In J. Hüther, B. Schorb & C. Brehm-Klotz (Hg.), *Grundbegriffe: Medienpädagogik* (pp.17~23), München: kopaed.
- Schorb, B. (2005). Medienkompetenz. In J. Hüther, B. Schorb & C. Brehm-Klotz (Hg.), *Grundbegriffe: Medienpädagogik* (pp.257~264), München: kopaed.
- The Euro Journal EKNews, 2009.4.6, 7.
- Virilio, P. (1989). *Esthétique de la Disparition*. 김경은 옮김 (2004). 『소멸의 미학』.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E925D4910BC34468BB6FAF5318754FE5
- 독일 실버미디어 교육 홈페이지 <http://www.silbermedia.de>
- 독일 시립 노인 미디어교육센터 벤노하우스 홈페이지 http://bennohaus.info/content.php?seite=seiten/medienzentrum_senmigr_de.php&oph=15-56

(투고일자: 2009.5.28, 수정일자: 2009.10.7, 게재일자: 2009.10.19)

ABSTRACT

The Purpose and Educational Methodology of Media Education for Senior Citizens: With Emphasis on Focal Interview on Media Education Teachers for Senior Citizens and Learners

Jin-Suk Kang*

This Study aims to thesis the purpose and educational methodology of media education for senior citizens. As background research, current situation and agendas regarding the media education for senior citizens were investigated. In further, quantative focal interview method was deployed to analyze recognition of teaches and education participants in media education for senior citizens. Focal interviews basis on the purpose, problems of education environment, preferred education method and suggestions of media education. The focal interview lead to in-depth opinion relying on experience of teachers and education participant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esent the basis data for future theoretical systemization of neglected classes and for seeking educational utilization methods.

Keywords: Media Education for Senior Citizens, Aging Society, Silver Media, Monitor Education, Welfare for Aged.

* Associate professor(Dept. of Mass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